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31화)

의인의 수가 채워진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 7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이담인 일곱째 천사**
- 1) 피란길에 오른 다섯째 천사
 - 2) 2차 점령을 시도하는 하나님
 - 3) 너는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 4) 대규모 야외집회를 개최함
 - 5)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 6) 1950년 중반, 감람나무에 대한 교계의 해석

1) 피란길에 오른 다섯째 천사

(지난호에 이어서) 조그만 더 지체하였다면 가족 전체가 거기서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화물차 앞 차방에는 전부 군수품을 실었는데 거기 실었던 폭탄이 튀기 시작하여 그 근방은 불바다를 이루고 파편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길에 있던 피란민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피바다에는 피가 튀는데, 다섯째 천사 박태선님의 식구는 그 파편의 소나기와 넘어지는 송장 틈으로 지나갔지만 어린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니다. 다섯째 천사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 2차 점령을 시도하는 하나님

물결처럼 흔들거리는 피란민의 길은 아무리 밀고 떠밀면서 나가도 하루에 십여 리 이상 더 전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식구는 가고 가다가 행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동리에서 집을 내리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생활한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부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를 신령한 성체(聖體)로 바꿔 놓기 위해, 죄(罪)가 녹아있는 피를 다 쏟게 하였습니다. 그 죄인의 피가 몸 밖으로 다 배출되자, 하나님께서는 피가 빠져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생수를 가득 채워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다섯째 천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의 영으로만 꽉 찬 상태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뼈골 속에는 마귀영이 그대로 잠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 이후로 육체 년간 자손만으로 핏줄기를 타고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을 지배해 왔던 마귀 영을 단숨에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나님은 소변으로 마귀 피가 빠져나간 다섯째 천사 앞에 마귀의 충실한 종이 되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마치 예수의 마귀 피를 그의 입안으로 넣어주는 것처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성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다섯째 천사는, 비로소 동정녀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영적 동정녀로서, 6천 전에 일어났던 두 씨, 즉 아담과 해와를 찾아야 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찾아서 그들의 영적 업마가 되어 그들을 이긴자로 키운다고



페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기도로 살려낸

해서, 다섯째 천사는 영적 업마, 즉 '영모(靈母)'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되라

요한계시록 26-28절

이긴자에게 철장을 주어 만국을 다스리게 하리라 또한 새벽별을 주리라

너,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여 보아라

다섯째 천사가 평택에서 임시로 거처하고 있던 집 앞방에 김포 장로의 딸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가정은 돈이 없어서 멀건 죽을 쑤어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데 마주보이는 건넌방 김포 사람은 매일 소갈비를 구워먹으면서도 먹어보라고 권하는 시늉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장로 딸의 가정에는 본래부터 페병으로 앓는 아들이 있었었는데, 병세가 점점 중하게 되어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집안싸움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이 살던 이 부부도 아들이 죽게 되니까 마음이 감동되었는지, 평상시에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다섯

째 천사의 방으로 건너와서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예배나 한번 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니라

다섯째 천사는 즉시 그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다 누이고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페병은 죽을 때에 모든 독한 균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영양불량으로 극도로 쇠약해 있는 다섯째 천사의 어린 자식들 곁에 환자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천사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 아이를 위하여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평범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죽을 아이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달라는 의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 하는데, 다섯째 천사에게 "너,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여 보아라." 하는 명령이 내리었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이제는 다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볼까?' 하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수록 힘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아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백짓장 같은 얼굴에다가 눈을 허영게 뒤집어쓰고, 입술이 다 마르고 호흡이 다 끊어졌던 아이가 점점 얼굴에血色이 돌고 눈이 바로 뜨이고 끊어졌던 호흡을 다시 하게 되고, 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들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미칠 듯이 하였습니니다. 그 아이는 즉시 튼튼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죽어간 페병환자를 살림으로써 사후천국의 조각극을 은밀히 암시하고자 의도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섯째 천사는 알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 신은 다섯째 천사의 기도 제목의 변경에 당혹하였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죽어가는 페병환자의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기에 마귀는 밥상에 앉아 군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되니까 마귀는 입맛만 다신 꼴이 되었습니다.

빨라가 난 마귀는 다섯째 천사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피난하였던 동네에서 오 리 가량 되는 촌락에는 중공군 오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중공군의 대장을 점령한 마귀는 5천 명의 중공군에게 명

령을 내려, 해가 떨어진 한밤중에 다섯째 천사가 사는 동네로 쳐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중공군의 선봉대가 다섯째 천사의 이웃집까지 왔을 때, 다섯째 천사는 갈렙산상의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여! 이 중공군으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옵소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 다섯째 천사의 기도를 즉각 이루어 주시었습니다. 중공군은 다섯째 천사가 사는 동네를 향하여 물밀듯이 밀려 오다가, 갑자기 선봉장이 무슨 큰 소리로 호령을 하니까, 오천 명의 중공군은 일시에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억만 대병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많은 군대를 소경이 되게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여롭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여롭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섯째 천사에게 맡겨주신 의인의 수가 채워진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공군, 소련군, 인민군이 다 물러갔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틀림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섯째 천사는 어서 속히 그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사만사천의 의인의 숫자가 채워지지만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박한수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16일째>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석존은 제자들에게 "미륵부처님은 바로 아미타부처요 아미타불이나 비로자나불이나 모두 한분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가 죽기 하루 전에 설한 대반열반경을 통하여 자신이 승복하였던 것을 밝혔다. 그리고 성불하신 부처님이 계신 도량(道場)에서 21일 만에 성도하고자 새식구는 반드시 생미륵불을 스승으로 모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열반경에서 석존께서 말씀하신바 "한 사람이 부처를 이룰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를 이룬다."라는 주인공이 보살마하살이자 곧 생미륵불이기 때문이다. - 『감로의 도로서만 생로병사 해탈하라』에서

지금의 미륵은 석존 입멸 후 3,000년이 지났으므로 현재불(現在佛)이 된다

아일다(阿逸多)는 인도 바라나시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일찍이 석가모니가 세상에 있을 때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원에서 "미래세에 부처를 이루리라"라는 수기를 받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입멸하여 도솔천에 머물며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신 분이로서, 다음 세

상에 부처를 이룰 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석존이 대승 경전이라고 불리는 법화경에서도 밝혔지만 방편의 가르침이었지 실제 아일다(阿逸多)가 윤회를 하여 태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본래 영원 전의 부처님 즉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강신(降神)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불도를 닦아 부처님을 이루어 모든 중생들의 크나큰 죄의 업장을 자비와 사랑으로 구제하여 주시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온 우주를 극락으로 건설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씨보살(慈氏菩薩)', '미륵보살' 또는 '미륵불'이라 불린다.

석가모니가 과거 3,000년을 이어 온 과거불(過去佛)이라면 석가모니 입멸 후 3,000년이 지난 지금의 미륵은 석존 당시 시대에서 보면 내세불(來世佛)이며 또한 석존 입멸 후 3,000년이 지났으므로 현재불(現在佛)이 되는 것이다. 석가를 이어 내세에 중생을 제도하는 미륵에 대한 신앙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경전에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에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중생을 구원하러 오실 부처님이 바로 미륵부처라고 확정적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

"우바리야, 자세히 들으라. 이 미륵보살이 미래세상의 중생에게 큰 귀의 처가 되나니, 미륵보살에게 귀의하는 이가 있다면 알지이다. 이 사람은 미륵보살이 여러(多陀阿伽度) · 공양반을 이(阿羅訶) · 최상의 깨달음(三藐三佛陀)을 이루어 부처가 될 때에, 미륵불의 광명을 보는 것과 함께 곧 미래에 부처 될 수기(授記)를 얻느니라."

법맥(法脈)은 미륵에게 전해져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불경인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과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44권에서도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미래세상에 중생을 구원하실 분이 미륵부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때 세존이 가섭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제 늙어 여든 살이 넘었도다. 미륵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석존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미륵부처님이다."라고 하니 그의 제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법맥(法脈)은 미륵에게 전해졌다. 불법(佛法)의 맥이 석가모니를 떠나 미륵에게 전하여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마하가섭이 곧 모든 생각을 없애고 번뇌가 없는 고요한 선정(禪定)으로

부터 깨어나, 옷을 바로하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는 왼쪽 다리를 세워 꿇어앉은 뒤, 합장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를 미륵부처님께 올리면서 이렇게 사되느니라.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 여래 · 응공 · 정변지께서 열반에 드실 적에, 이 법복을 저에게 주시면서 미륵세존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셨나이다."

불설미륵대승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이라고 하여 불법의 맥이 석가모니를 떠나 이미 미륵에게 전하여 주었음을 알려 주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당시의 모든 제자들은 당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하루속히 미륵부처님을 만나서 진실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모두 성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장면이 불설미륵대승불경에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제 이 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마르게 원하는 것은 이 다음 세상의 부처님이 감로(甘露)의 도를 열어주시는 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부처님의 이름이 미륵이시고 그 공덕과 위신력으로 그 부처님 세계의 장엄한 것이니 어떤 선근과 계율과 보시와 정함과 지혜로써 미륵부처님을 뵈고 듣는 일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막상 죽



승리절 경축행사에 참석한 후 새식구교육원에서 한국신종교학회 연구자들에게 승리제단을 소개할 때 내린 불성신의 감로이슬성신(2018. 10. 15 촬영)

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단 1초라도 더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살려준다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종교에 있어서 근본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범을 한다. 불교의 '생로병사의 해탈'이나 기독교의 '성령회복' 등이 결국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종교의 목표요 이상향인 것이다.

선한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만이 미륵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

대반열반경 2권 순타품 제2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가 마치 우담꽃과 같이 어려우며, 부처님을 만나서 믿음은 내기가 또 다시 무척 어려우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미륵부처님을 만

나려면 선한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만이 살아야 한다. 아무리 현재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셔도 자신이 '나쁜 업장(惡業)'으로 인하여 만나볼 수도 없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자신 속에 마군(魔軍)들의 방해로 인하여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즉, 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에 분명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세상의 일곱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 이름을 듣고 공양 · 예배하여, 큰 공덕을 쌓아서 업을 깨끗이 한 사람이라야 미륵부처님의 위대한 자비로써 진리의 근본 가르침을 듣고 비로소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지극한 정성으로 합장하여, 미래세의 교조(敎祖)이신 미륵부처님의 큰 자비에 귀의할지어라."*

박태선 기자